

『범죄분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23.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2024.12.



검찰

PROSECUTION SERVICE

〈차 례〉

I . 통계 개요	1
II .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3
III . 통계설계	4
IV . 자료수집	9
V . 다른 행정자료 활용	10
VI . 자료처리	12
VII .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4
VIII .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7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범죄분석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 개요

1. 통계명

범죄분석통계

2. 법적근거

- 국가승인통계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135001(승인일자 1976년 7월 29일)
- 범죄분석통계 작성의 기준(범죄통계개선)
 - 대검찰청 예규 제772호(2015)

3. 작성방법

-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에 입력된 범죄발생 사건, 검거, 피의자에 관련된 정보를 집계
- 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추출,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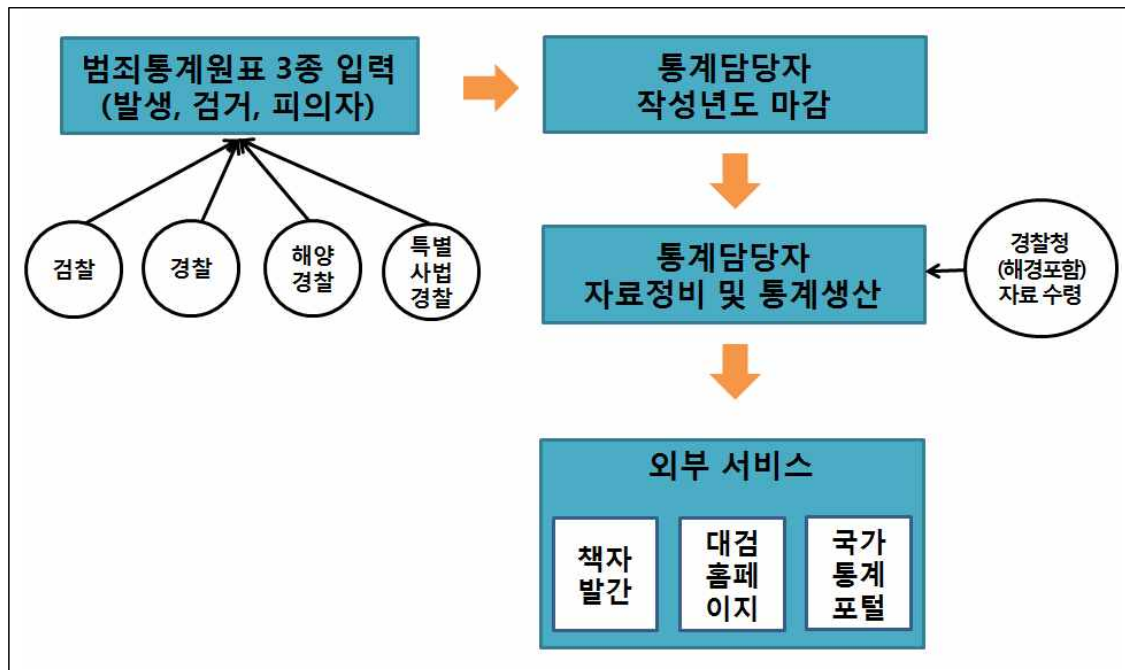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 1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미입력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원표 입력(익년 4월)
- 작성년도 마감(익년 7월) 및 경찰청 자료와 통합
- 대검찰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 공표(익년 12월)

7. 통계연혁

□ 최초 개발 시기 : 1962년(1963년 발간)

□ 개발배경

- 각종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정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범죄분석통계 개발

□ 개편이력

- 최초 작성년도 : 1963년 범죄분석 발간
- 승인일자 : 1976년 7월 29일
- 1964년 ~ 1993년 범죄분석 책자는 분기 단위로 발간
- 1994년부터 연 단위로 발간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작성의 목적

- 범죄현상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형사사법의 문제점 발굴, 범죄예방과 검거 대책 등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 분야의 통계를 대국민 제공

□ 주된 활용분야

- 부처별 통계수요기관 정책수립 시 필요통계 제공
 - 법무부, 통계청, 지자체 등
-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요청에 따라 보유 자료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 내부적인 활용
 - 연도별, 죄명별 범죄 경향 파악 및 관심 사안 등 확인
 - 제도수립 전 현황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로서의 활용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주요 이용자 및 유형별 용도

- 주요 정부기관
 - 각 기관별 발간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 형사정책수립, 범죄동향 파악 등
- 기업체 및 사업체
 - 각 기관 본연의 업무 관련 범죄의 현황 및 추이 활용
- 민원인(개인)
 - 각종 범죄현상에 대하여 사건 단위, 범죄자 단위에 따라 지역별, 처분별 등 다양한 수요

3. 이용자 의견수렴

□ 전문가 대상 활용성 방향 수립

- 전문가 대상 범죄분석 관련 연구과제
 -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2010, 형사정책연구원
 -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2015, 형사정책연구원

- 연구과제에서의 주된 제안 내용
 - 범죄통계원표 개편의 필요성(입력 항목의 축소, 유형별 차별화)
 - 범죄분류의 유형별 계열화 부족(분류체계 정비 필요)
- 주요 개선 내용
 - 2015년(2014년 통계)부터 범죄분류 체계를 세분화하여 통계작성
 - * 예 : 성폭력 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 등 13개 세분류로 분류
 - 기관 간 범죄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TF 추진
 - 범죄분류체계 표준화 검토, 2014년 5월(대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T/F, 2017년 2월, 4개 기관(대검찰청, 통계청, 경찰청, 법무부)
 - 검찰·경찰 범죄통계원표 개편을 위한 TF 추진
 - 2016년 3월 검·경간 범죄통계원표 개선회의 시작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항목별 개념 및 정의

- 보고 항목
 -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범죄처리기간,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 (범행특성) 범죄발생시간 및 장소, 범행수법 및 도구, 공범,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
 - (범죄자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과관련 특성, 기타 특성
 - (피해자특성 및 피해결과) 피해자 특성, 피해결과
 - (범죄자 유형별 특성)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전과자, 정신장애 범죄자, 고령범죄자, 외국인범죄자
- 통계의 단위는 건수와 인원수로,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는 사건 단위인 건수,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단위인 인원수로 산정
- 검거건수는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 중 한 해 동안 발생사건의 피의자 또는 공범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한 사건 수
- 검찰 직수·인지 관련 통계는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직수한 사건의 통계로서, 검찰청별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 통계

- 고령범죄자는 만 65세 이상의 범죄자
- 범죄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 및 기타로 구분(다만, 각 지방의 의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포함)
- 공범관계에 대한 통계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인 조건으로 작성
- 공범수는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범의 숫자(단독은 공범이 없는 경우이고 2명은 주피의자와 공범이 1명인 경우이며, 3명 이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이고, 검찰 직수·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의 처분결정 시임(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
- 금전소비용도는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
-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한 사건 수
-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수로 나눈 것. 당해 연도 검거건수/당해 연도 발생건수×100, 검거건수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해 연도에 검거한 사건 수가 아니라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검거한 사건 수
- 발생비는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기준)
- 범죄발생지는 발생통계원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 45개 도시, 기타도시, 도시이외의 지역으로 구분
- 범죄발생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로 구분(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 기준)
- 범죄자는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된 형사 피의자
- 범행 후 은신처는 피의자가 범행 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은신하였을 경우에 가장 오랫동안 은신하였던 곳을 의미
- 생활정도는 피의자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 및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도
- 소년범죄자는 「소년법」(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에 따라 19세 미만(14세 ~ 18세)의 피의자를 의미함.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외국인범죄자 국적은 외국 국적의 범죄자 중 범죄자 수가 많이 분포된 상위 10개국 및 기타로 분류
- 장물 처분방법은 장물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처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물의 처분방법으로만 집계

- 재범은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 재범기간은 전회 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 시까지의 기간을 의미
- 재범종류는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으로 구분, 동종재범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이종재범은 동종재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포함함
- 재산피해정도는 재산피해정도가 미상인 경우에, 재산피해품목과 피해금액을 활용하여 재산피해정도(피해 무, 1만원이하 등)를 보정함
-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은 중복 피해(회수)를 당한 경우 피해(회수)품목 및 피해(회수)금액(단위: 십만 원)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전과는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
- 전회처분 내용은 본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 즉 범행 당시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분의 내용이나 그 집행상황을 의미.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집행 종료에 포함
- 정신장애 범죄자는 범행 당시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변태성욕자 등))가 있는 범죄자
- 종교는 피의자원료 항목 중의 하나인 '종교'이며, 경찰청에서 2020년도부터 임의항목으로 변경하여 미상이 크게 증가함. 따라서 시계열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처분결과(총괄: 법인체 포함, 법인체 별도 제시)는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24. 7. 31.까지 검찰의 중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와 2023. 1. 1. ~ 2023. 12. 31. 기간 중 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된 피의자통계원표 수를 집계. 2021년 1월 1일 형사법령 제·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법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 항목 추가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입력
- 피해자와의 관계는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주된 피해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는 피의자를 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혼자는 혼인관계별로,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유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 동거인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독신인 경우, 사별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인 경우를 의미

- 『범죄분석』에 쓰인 용어는 엄격히 법률적인 뜻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넓게 사용하는 의미도 포함

1-2 적용 분류체계

□ 분류체계 개요

- 각 「형법」 및 「특별법」에 대하여 죄명별로 통계를 수집. 이를 모두 열거하여 공표할 수 없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죄명분류를 설계하여 통계로 공표하고 있음
 - 현재 「형법」분류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를 포함한 재산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범죄(흉악),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활동)을 포함한 강력범죄(폭력), 통화, 유가증권인지우표, 문서, 인장을 포함한 위조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를 포함한 공무원범죄, 도박과 복표, 신앙, 공연음란을 포함한 풍속범죄,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를 포함한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
 - 「특별법」분류는 특별법범죄 중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사회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024 범죄분석』는 63개(중분류 개념)와 116개(소분류 개념) 분류로 구성
- 매년 죄명이 신규 생성, 변경, 폐지 등의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는 변경 가능성이 있음(『범죄분석』부록 참조)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항목)

- 발생통계원표: 발생지 조사기관, 죄명, 장소, 수법 등 21개 항목
- 검거통계원표: 검거 조사기관, 검거인원, 검거유형 등 19개 항목
- 피의자통계원표: 검찰 34개 항목, 경찰 특별사법경찰 33개 항목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은 개선사항 도출 시 일부 변경, 향후 범죄통계원표 개편(예정)에 따라 보고양식 전체 변경 예정
 - 기존 발생지 통계는 시 단위로 작성하였으나, 2004년부터 특별·광역시는 구 단위로 작성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은 대상기간 각급 기관(검찰, 경찰(해경 포함), 특별사법경찰)에서 고소, 고발, 인지 등으로 접수(승인)된 전체 사건 및 피의자
 - 군사법원 관할의 범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 통계작성자(통계담당자)는 작성대상인 범죄의 발생사건, 검거사건, 범죄자에 대해서 발생·검거통계원표는 사건을 중심으로, 피의자통계원표는 형사사건을 유발한 개인, 법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작성기간 내 통계작성대상 변경

- 범죄분석통계는 1년 공표주기의 통계로, 대상기간에 대하여 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는 익년 4월, 이 중 피의자통계원표의 검찰 종국처분은 익년 7월까지 입력된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통계작성대상이 변경되지 않음
 - 작성기간이 도래된 이후의 시점에 자료를 고정하여 작성하므로 작성기간 내 통계작성대상이 변경될 소지는 없음

3. 통계작성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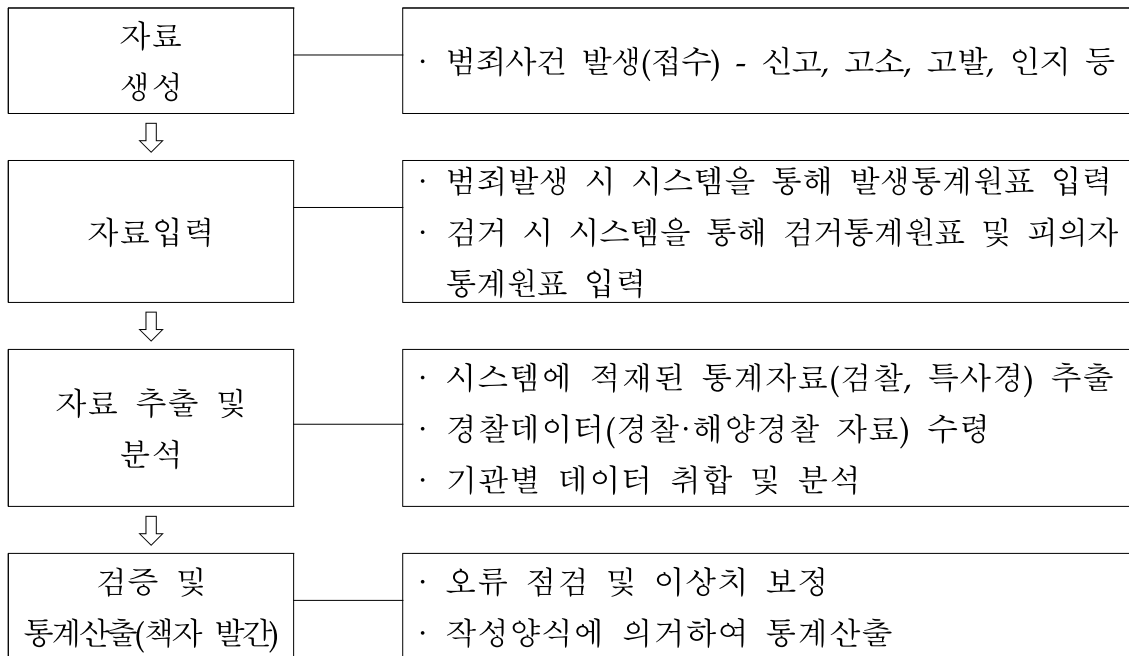
□ 통계개편을 위한 문서화

- 연구용역을 통한 통계개선방안 연구
 -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2010, 형사정책연구원
 - 범죄분석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2015, 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 및 집계과정에 대한 검토, 편집체계 및 내용 분석의 문제점 고찰 등
 - 통계원표 개편
 - 범죄통계원표를 통한 범죄통계 작성 이후(1963년)에 큰 변경이 없었던 관계로, 현실화 및 개선을 위한 검찰·경찰청 회의는 2016년도부터 진행
 - 범죄통계원표 개선과 아울러 연계시스템 마련 등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
 -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집 통계항목에 대한 현실화 반영 계획
- ※ 2023년도에, 경찰청은 범죄통계원표를 개선하여, 검찰청 2023년 범죄분석통계와 일부 상이한 항목들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자료수집 절차 흐름도



□ 자료수집 체계

- 발생통계원표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수사기관에서 즉시 입력
-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는 검거 또는 이송을 받아 수사 종결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할 수사기관에서 작성
 - 사건 단위로 작성되는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는 발생, 검거 건에 대하여 각각 1매씩 작성, 피의자통계원표는 1인에 1매 작성
 -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는 피의자가 다수의 죄에 대하여 입건된 경우 죄명별로 1매씩 작성
 - 피의자통계원표는 1인 다수의 죄인 경우 가장 중한 죄(법정형이 높은 죄)에 대하여 1매 작성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범죄통계원표를 입력하기 위하여 예규에 의거, 입력담당자가 상시 철저히 내용을 숙지
- 입력담당자가 범죄통계원표 입력 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통계작성 담당자 및 관련자 의견을 통해서 즉시 조치

3. 현장관리

- 작성 대상기간 중 수리된 사건, 검거된 피의자 중 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는 작성 대상기간의 익년 4월 30일. 또한, 작성 대상기간에 입력·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익년 7월 31일까지 검찰의 중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검찰 및 특사경 기준)
 - 통계작성기간 전 입력사항을 점검 및 입력 독려
- 보고 양식에 대한 기입 요령은 예규에 의하여 규정
 - 범죄건수의 결정 기준은 피의자의 행위 수에 의하여 정함, 동일기회를 이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행하여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1건(전철, 기차, 흥행장, 대합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진 수회의 절도, 공갈, 폭행, 상해 등)
 -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죄 또는 주된 죄 1건으로 함(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를 한 경우: 사기죄로 함)
 - 하나의 업으로서 또는 직업적으로 반복 행해진 동일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포괄 1건(부정품의 연속판매에 의한 수개의 외설물죄)

v. 다른 행정자료 활용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행정구역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활용

- 활용목적: 단순히 발생건수를 기입하는 것 외에 범죄발생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지표 산출이 목적
- 범죄분류별 발생건수에 대하여 인구 100,000명에 대하여 환산하여 발생비 산출
 - 정량적인 발생건수에 대한 보조지표로써 활용(발생건수/인구수×100,000)

-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발생건수에 대하여 발생비 산출
 - 지역별 인구를 통해서 발생비(지역 발생건수/지역 인구수×100,000) 산출, 인구분포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표가 산출가능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 수집목적: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 교육, 조세, 복지, 교통,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적시성 있는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가행정 및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내용: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3,488개 읍·면·동,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 및 주민등록기준 읍·면·동별 출생자, 사망자, 세대원수별 세대수, 평균연령, 인구 증감
 - 과정: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기관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집계
 - 방법: 행정집계
 - 공표주기 및 시기: 월(매월 말일 기준), 작성기준 월 익월 1일
 - 수집 및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 보고체계: 자동집계(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 입수방법, 경로, 법적근거
 - 국가통계포털(KOSIS)을 활용하여 자료 입수, 활용하는 항목은 시·군·구별 인구수 * (경로) 통계표명은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 범죄분석통계는 연 통계로 행정자료를 별도로 유지·관리하지 않고, 작성 연도에 해당되는 인구통계를 국가통계포털을 이용하여 추출·활용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열람 시 및 참고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자료의 가공 및 단체(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불가

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전체 인구수, 지역별(시·군·구) 인구수, 연령별 인구수 등 3가지 변수 활용
 - 전체 인구수는 전체 인구 수 합계 사용
 - 지역별 인구수는 각 시·군·구 지역의 인구 수 사용
 - 연령별 인구수는 나이대별 인구수를 합산하여 사용

4. 행정자료의 보완

- 별도로 행정자료를 보완하지 않음

Ⅶ.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내용, 코드체계

- 대검찰청 예규 및 전산입력 요령에 의하여 입력
 - 항목별 정보가 수사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수성에 따라서 수사관의 판단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생활정도) 대다수가 객관적인 지표로 즉시 입력 가능한 문항
 - 대다수의 항목은 코드가 지정되어 있는 범주형 형태이며, 피해액, 범행시 연령은 개방형으로 되어있음
 - 예시)

피의자 관련 ‘전과’ 항목	코드	내용
	0	없음
	1	1범
	2	2범
	3	3범
	4	4범
	5	5범
	6	6범
	7	7범
	8	8범
	9	9범 이상

□ 전산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을 위한 적용방법

- 전산입력 방법: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 시스템을 통한 입력
- 전산입력 내용: 항목별 작성방법(항목별 개념 참조)을 근거로 하여 입력
- 입력오류 검출관련
 - 범죄통계원표 중 필수입력항목(일시, 수사기관, 죄명, 사건번호 등) 미입력 시 시스템에서 팝업으로 입력자에게 알림
 - 내검 규칙(항목별 오류 점검)을 통해 오류 검출

2. 자료내검

□ 자료의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시스템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작성과정에서 중복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없음
 - 자료추출 후 검증을 위하여 발생·검거통계원표는 사건번호를 활용하여 중복여부 확인, 피의자통계원표는 사건번호와 인원을 활용하여 중복여부 확인
- 미입력 범죄통계원표는 연 4회 이상 자료를 추출하여 확인, 검찰청 소관 사건의 경우에는 일선청으로 공문 시행하여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범죄분석통계 자료집계 절차 및 내검 요령

- 검찰통계시스템에 전산담당자가 접속하여 원자료를 추출, 통계담당자 자체 내검을 실시 후 자료 집계(통계산출) 및 마감 진행
 - 전산담당자(혹은 통계시스템 접근이 허가된 사람)가 검찰통계시스템에 접속
 - 통계산출에 필요한 모든 범위의 원자료 추출
 - 각 항목별 미상치, 분포 등 확인: 원자료 직접 내검
 - 원자료 상 문제 시 사건번호 등 고유기를 활용하여 값 확인절차를 거침
 - 분포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연간통계)와 비교 시 값의 범위가 200% 이상 초과될 경우 이상치 확인
 - 통계집계 후 집계통계 오류확인: 집계통계 직접 내검
 - 자료집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원값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값 및 보정값을 반영
 - 집계통계 또한 각 항목값이 직전년도와 비교 시 값의 범위가 200% 이상 초과될 경우 원값 수치 확인, 논리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값 확인 및 보정

3. 무응답

- '23년 기준('24년 작성) 원표별 주요 항목에 대한 무응답률
 - 산출식: 무응답률 = (무응답 건수/해당 항목이 입력 가능한 전체 건수) × 100(%)
(단위 : %)

구분	송치관서	죄명	발생요일	수사단서코드	발생지
발생통계원표	0.0	0.0	0.0	0.0	0.0
구분	송치관서	죄명	검거단서	절도수법	사기수법
검거통계원표	0.0	0.0	0.0	0.6	1.6
구분	송치관서	죄명	피의자성별	피의자국적	송치의견
피의자통계원표	0.0	0.0	1.6	0.0	3.6

- 주요 항목들의 무응답은 대체하지 않고, 미상 항목에 포함하여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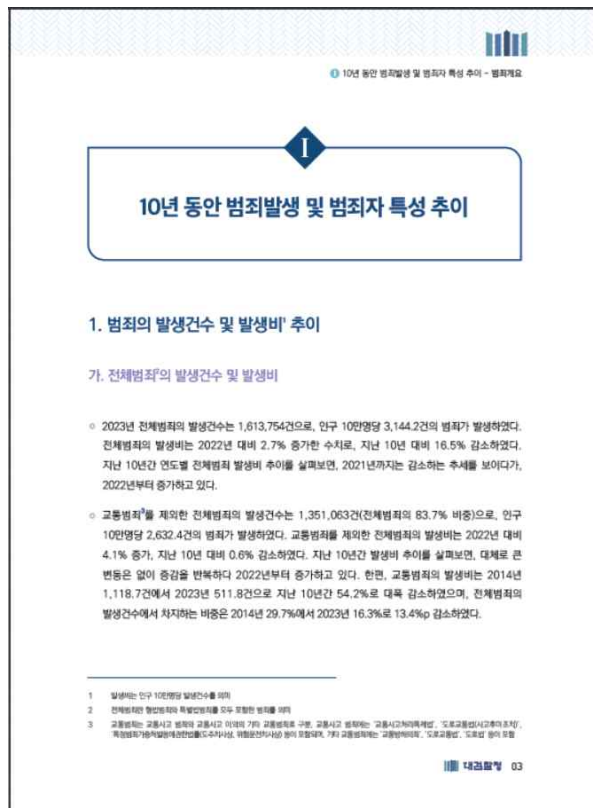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전년과 비교하여 200% 정도 이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값을 점검하고, 이상치인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여 값을 보정함

VII.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 통계는 통계표 위주이며, 발간되는 『범죄분석』의 개요에 ‘10년 동안 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 추이’, ‘주요 범죄유형별 특성’에 대하여 표와 그래프를 제시함
 - 아래의 예시는 10년 동안 발생건수 추이를 설명하는 표와 그래프의 일부(『2024 범죄분석』)



- 성별 관련 통계

- (피의자통계원표) 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범죄자 성, 범죄자 남녀 및 성인·소년별 전과, 재범자 남녀 및 성인·소년별 전회처분 상황, 여성범죄자 연령, 여성범죄자 직업, 여성범죄자 전과, 여성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여성범죄자 재범기간 및 종류, 여성범죄자 공범관계, 여성범죄자 범행동기, 여성범죄자 교육정도, 여성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여성범죄자 처분결과, 소년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소년범죄자 처분결과, 고령범죄자 성별 연령, 고령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외국인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 이용 시 유의사항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건 단위 작성, 피의자통계원표를 사용한 통계는 인원(명) 단위로 작성됨에 따라 해석에 유의(발간물에 통계표별 범죄통계원표명과 단위 기재)
 - * 사례 : 피해자 관련 통계는 발생통계원표 항목이므로 건 단위로 작성됨에 따라,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수치는 해당 피해자가 발생한 인원이 아닌 사건 수임
 - 형법>강력범죄(흉악)>성폭력 내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는 『2021 범죄분석』부터 세분류로 추가됨
 - 특별법범죄 중 ‘특가법(도주차량)’에 해당하는 범죄 중 일부가 2016. 7. 1. 죄명 변경 이후 ‘기타특별법’으로 분류되었으나, 『2021 범죄분석』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 범죄 모두를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2021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특별법범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등)’로 변경하여 『2021 범죄분석』부터 공표함
 - 특별법범죄 중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은 ‘농수산물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은 ‘화재의예방및안전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2023 범죄분석』부터 공표함
 - 특별법범죄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2022 범죄분석』부터 추가 공표함
 - 특별법범죄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2023 범죄분석』부터 추가 공표함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의 익년 12월(잠정치를 공표하지 않음, 책자 발간(연보))

2-2 공표일정

-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URL : <http://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
 - 분류기준은 동일하나 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여 매년 죄명이 신규 생성, 변경, 폐지 등의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유형, 세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는 변경 가능성 있음

3-2 시계열 비교성

- 연도별 시계열 비교 가능. 다만, 범죄분류 체계가 2014년 기준(『2015 범죄분석』)으로 변경되어 연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3-3 국가간 비교성

- 독일, 미국,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범죄백서의 형태로 범죄통계를 발간하고 있음
- 형사법 체계와 범죄분류체계가 상이하여 국가 간의 직접 비교는 불가

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현황

- 통계작성 계획 : 『범죄분석』 발간 계획서 작성
- 현장조사관리 : 시스템을 통해 집계가 되므로 해당 없음
- 공표자료 제공 방법 : 홈페이지에 등재, 책자 발간
 - 공표일정 및 연보(<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등재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등재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서비스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 경로 : 메인 → 정보자료 → 통계자료 → 범죄분석
 - 유형 : PDF 파일 제공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경로 : 메인 → 국내통계 → 기관별통계 → 중앙행정기관 → 검찰청 → 범죄분석통계
 - 유형 : Excel, CSV, TXT, SDMX(2.0) 제공 가능

2-2 통계설명자료[작성개요~참고자료]

☐ 통계설명자료 소재 위치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에 통계 개요, 용어해설, 유의점 등 수록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는 서비스하지 않음